

칼럼



김운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으며

'오월 광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군부(軍府)독재 계엄군의 총칼 앞에 맞서 싸우며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날의 함성은 41년이 지난 지금도 깨어있는 국민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나는 광주시 북구 망월동 시립공원묘지나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생각만해도 눈물 나는 사람이다. 5·18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尹祥源) 열사가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 3학년 3반 친구이기 때문이다.

2년 전, 2019년 2월 8일에는 '5·18은 북한군 600명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해괴한 주장을 하는 지만원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로 불러 들여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주최했다. 그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는 종북 좌파 정부가 만들어낸 괴물집단으로 국민 혈세를 쓰고 있다' 등 망언을 했다.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가. 몇 년 전에는 종합채널 TV조선

과 채널A에 나와서 자기가 5·18민주화운동에 투입되어 활약했던 북한군이라고 떠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과학문명과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악의적인 조작 왜곡과 흑세무민(黑世誣民)이 가능한 일인지, 나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돈과 권력은 무섭다.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에 국가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기념식은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개최해 오다가 2003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다. 2018년 3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이 조사위원 추천을 마루어서 지난해에야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되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에 의뢰할 수 있을 뿐이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5·18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안보지원사

령부(옛 보안사, 기무사령부)의 문서를 열어 줬다고 명령하면 된다. 5월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국가 폭력은 군사기밀이 아니고 내란 목적 살인죄다.

지난 3월 2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무릎 꿇고 사죄했다. 민주 시민을 학살했던 군부독재의 계승세력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나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예방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등 99명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5월 17일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꾸준한 진정성에 화답한 결과다.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齊唱) 문제로 정부 여당이 주최하는 기념식과 5·18단체와 야당(민주당)이 주최하는 기념식이 따로 열리던 기묘한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이다.

정운천(전주시 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최근까지 국회정무위원회 간사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5·18단체 소속 회원들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절절하게 국회를 설득한 노력의 결과다. 5·18단체와 여야가 함께 터놓고 대화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왔기 때문이다.

4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자행했던 민간인 학살, 암매장, 사망·상해·실종사건, 성폭력과 고문, 헬기 사격, 발포 책임자 규명 등 만인륜적인 만행들을 낱알이 밝혀야 한다.

민주와 자유, 평화의 5·18정신은 광주와 한국을 넘어서 꺾박받은 전세계 시민들의 희망과 위안이 되고 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5·18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미얀마의 참담한 상황을 보며 같은 경험을 했던 광주는 분노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푸른 빛으로 살아나는 부활이여

윤상원 열사 동상 건립을 보며

김운호

나뭇잎들이 푸른 노래 부르며 철쭉꽃 피어나는 오월

저 들녘에 보는 사람 없어도 무더기로 피어나는 이름 모를 작은 풀꽃들 온 힘을 다해서 일어서는 어린 풀잎들을 바라보자

무등산이 산빛을 잃어가고 금남로가 햇빛으로 물들었던 오월 목숨으로 폭풍우 앞을 기꺼이 막아선 민주와 통일의 수호천사

27년의 춤고 어두운 오솔길을 돌아서 청보리밭 사이 흰이 열려 있는 자운영 꽃길을 걸어오는 남이여

심장에 새겨 있는 향기로운 영생이여 푸른 빛으로 살아나는 부활이여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 환경오염 우려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됐다. 하지만 이런 페마스크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는 대부분 쓰레기봉투를 통해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페마스크는 종량제 봉지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처리 방식과 똑같이 땅에 묻히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필터를 여러 겹 더한 마스크의 주요 재질이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프로필렌(PP)이란 점이다. 소재 특성상 땅에서도 잘 썩지 않는다. 땅에 묻을 경우 수백 년이 지나

야만 썩는다는 얘기가.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가 배출돼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는 특성상 분리배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현재까지 버려진 마스크 대부분은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방

법뿐이고, 페마스크 처리기준도 없고, 분리배출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 안전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지만 문제는 일회용 마스크를 주로 사용하는 점이다. 아직까진 페마스크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지만 환경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전·면 마스크 사용을 하도록 습관들이는 것이 좋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